

# 빨리 불교에서 두 가지 유형의 박띠\* - 인도의 종교적 전통과 관련하여

김한상

한국의국어대학교 HK연구교수  
devamitta@hanmail.net

I. 머리말

II. 인도 전통에서의 박띠

III. 삼귀의에서의 자기헌신

IV. 붓다의 두 가지 측면들

V. 맺음말

## 요약문

이 논문에서 필자는 빨리 불교의 박띠(bhakti)를 인도의 종교적 전통과 관련하여 접근한다. 비록 박띠가 인도의 유신론적 전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긴 해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힌두이즘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박띠는 그것이 유신론적 종교이든 무신론적 종교이든, 정통(āstika)이든 비정통(nāstika)이든, 인도의 모든 종교적 전통들에서 발견되는 핵심 개념이자 범인도적 개념이다. 우리가 박띠를 초월적·절대적 존재나 정신적 스승에 대한 자기헌신과 복종의 형태로 공경하는 자세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빨리 불교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확실하게 발견된다. 인도의 종교적 전통에서 박띠는 ① 인간적 관계로서 스승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나타내는 구루 박띠(guru-bhakti)와 ② 신에 대한 자기헌신과 복종으로서의 박띠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2079749).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7S1A6A3A02079749).

난다. 빨리 불교도 예외가 아니다. 비록 그것은 유신론적 종교가 아니지만 말이다. 빨리 불교에 입문하는 통로인 삼귀의는 자기헌신을 그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 가지 형태의 박띠가 나타난다. 불교 신앙의 궁극적 대상인 붓다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다. 빨리 텍스트들에서 붓다는 인간과 초월적 절대자의 두 가지 측면으로 묘사되는 데, 양자는 전체적인 개념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분리하기가 극도로 힘들 정도로 서로 얽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붓다에 대한 예배 형태 속에서도 두 가지 형태의 박띠가 발견된다. 그러므로 불교 전통에서의 박띠가 힌두이즘의 박띠 운동에 대한 자체적 대응이라거나, 붓다의 신격화의 산물이라는 견해는 잘못이다. 박띠는 붓다 당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빨리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어왔다.

### 주제어

박띠(bhakti), 귀의(sarāṇa-gamana), 힌두이즘, 빨리 불교(Pāli Buddhism), 자기헌신(atta-sanniyatanā), 깔야나밋따(kalyāṇa-mitta)

## I. 머리말

동서양을 막론한 모든 종교에는 어떤 거룩하고 숭고한 존재에 대한 신자의 신앙과 믿음이 존재한다. 그 존재가 초월적 신이든 종교적 스승이든 간에 말이다. 인도의 종교·사상의 역사에서 신앙과 믿음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들이 슈랏다(śraddhā)와 박띠(bhakti)이다.<sup>1)</sup> 슈랏다는 śrad(심장, 가슴)와 √dhā(놓다)에서 파생된 말로서 글자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한 일이나 행위를 뜻한다. 그래서 슈랏다는 힌두이즘의 제의서들에서는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도의 미한다. 박띠는 √bhaj(나누다, ~에 속하다, 숭배하다)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인 ktin이 결합된 것<sup>2)</sup>으로서 신에 대한 자기헌신(prapatti)과 복종(dāsyā)을 뜻한다. 그리고 힌두이즘의 주요 수행법들의 하나인 박띠의 길(bhakti-mārga)로 이

1) 石上善應, 「佛典に現われたる bhakti 信の用例」, 『印度學佛教學研究』 Vol. 8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1960), p.487.

2) Monier-Williams, *Sanskrit-English Dictionary* (Delhi: Motilal Banarsidass, 1999), p.743.

해되고 있다.<sup>3)</sup> 박띠는 처음부터 인도의 유신론적 전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4)</sup> 하지만 우리가 박띠를 정신적 스승에게로 향하는 사랑·신뢰·헌신·숭배·경외감·외경심과 같은 모든 종교적 감정들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유신론적 전통과 무관한 인도의 다른 종교적 전통들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라즈싱(R. Raj Singh)도 만약 박띠가 종교적 사랑(parama-prema)으로 충만한 인간적 사랑이거나, 종교적 직관으로 유도되거나 종교적 사랑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진 인간적 사랑이라고 한다면, 박띠가 유신론적 종교인 힌두이즘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sup>5)</sup> 그렇게 본다면, 빨리 텍스트들에서 샷다(saddhā), 빠사다(pasāda), 아디묵띠(adhimutti)와 같은 용어들로 표현되는 빨리 불교(Pāli Buddhism)<sup>6)</sup>의 믿음도 박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 
- 3) Carman, John B. "Bhakti" in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2. Edited by Mircea Eliade (New York: Macmillan, 1987), p.856.
- 4) 게오르크 포이에르슈타인, 김재민 옮김, 『요가사전: 요가와 탄트라에 대한 백과사전』 (서울: 여래, 2017), p.133.
- 5) Singh, R. Raj. *Bhakti and Philosophy* (U.K, Plymouth: Lexington Book, 2006), p.30.
- 6) 본 논문에서 ‘빨리 불교(Pāli Buddhism)’라는 용어는 초기 불교와 테라와다 불교 모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초기 불교는 빨리 삼장(tī-piṭaka) 가운데 『경장(經藏, Sutta-piṭaka)』과 『율장(律藏, Vinaya-piṭaka)』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테라와다 불교는 두 장외에도 빨리 『논장(論藏, Abhidhamma-piṭaka)』과 빨리 삼장에 대한 주석서(atthakathā)와 연대기들(vamsa)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앞으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본 논문에서 말하는 불교는 모두 이러한 빨리 텍스트들을 기본으로 한 빨리 불교이다. 만약 그것이 빨리 불교 이외의 다른 불교 전통일 경우는 별도로 언급한다.
- 7) 빨리 불교의 믿음에는 크게 정서적(affective)·능동적(conative) 측면과 지적(cognitive) 측면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점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Jayatilleke 1963: 387, 舟橋 1952: 198, 藤田 1992: 139-140). 믿음의 정서적·능동적 측면은 “그는 여래에 대해 충분한 믿음이 있고 충분한 애정이 있다(tathāgate c’assa saddhāmatam hoti pemamatam hoti)” (MN. I, pp. 142, 444, 479.)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고 신심이 적고 애정이 적고 청정한 믿음이 적다(ekacco puggalo ittarasaddho hoti ittarabhatti ittarapemo ittarappasādo)” (AN. III, p.165; Pp. 65.)와 같이, 믿음이 빠따(pema), 밧띠(bhatti), 빠사다(pasāda) 등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들과 나란히 등장하는 용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여래에 대해서 믿음을 얻는다(tathāgate saddham paṭilabhati)” (DN.I, p.63; MN.I, p.179, 344; III, p.134.)와 같이 믿음의 대상으로서 붓다가 나타나는 용례를 통해 믿음의 정서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다. 믿음의 지적 측면은 그 기반에 지혜가 작용하는 용례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윳따 니까야(Saṃyutta-Nikāya)』의 「옥간띠까 상윳따(Okkantika-saṃyutta)』의 여러 경들에는 5온(五蘊, pañcakkhandhā), 12처(十二處, dvādasāyatanāni) 등의 무상(無常, anicca)에 대해 “이 법들을 이와 같이 믿고 확신한다(ime dhamme evaṃ saddahati adhimuccati)” (SN.III, pp.225-228.)라고 설해져 있다. 여기서 믿는 대상인 5온, 12처 등은 지혜로써 그 본성을 알아야 하는 법이며, ‘saddahati’가 지혜에 의해 확신함을 의미하는 ‘adhimuccati’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 이 용례의 믿음은 지

일부 학자들은 빨리 텍스트들에서 보이는 박피적 요소가 붓다의 신격화 과정의 산물이거나 힌두이즘의 박피 신앙에 대한 불교적 대응으로 형성되었다고 생각해왔다. 예컨대 고펠로이 루드윅(Gyomroi-Ludowyk)은 불교의 믿음(saddhā)은 원래 지혜(paññā)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에 대한 새롭고 높은 평가인 박피 신앙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sup>8)</sup> 호너(I.B. Horner)는 장외문헌(post-canonical text)인 『밀린다빠하(Milindapañha)』에 나타나는 붓다의 사리 숭배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이 극기와 자기신뢰를 통한 자기계발을 가르치는 엄격한 테라와다 불교(빨리 불교)의 교리를 박피 신앙이 대체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한다.<sup>9)</sup> 노먼(K.R. Norman)은 『테라가타(Theragāthā)』에 나타나는 기적, 신들의 큰 모임, 한 송이의 연꽃으로 붓다를 예배함으로써 얻는 큰 보상에 대한 언급들이 모두 후대 대승불교를 연상시킨다고 말한다.<sup>10)</sup> 에드워드 토마스(Edward J. Thomas)는 신격화된 붓다와 보살에 대한 박피 신앙이 힌두이즘에 대항하여 형성된 것으로 본다.<sup>11)</sup> 에티엔 라모뜨(Étienne Lamotte)는 승가(Śūṅga) 왕조의 시기에 바이슈나비즘(Vaiṣṇavism)<sup>12)</sup>에 의한 강력한 유신론적 운동이 큰 성공을 거두어 이것이 불교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sup>13)</sup> 인도의 게일 옴베트(Gail Omvedt)는 박피 신앙이 신을 달래지 않고 자기절제를 강조하는 초기불교<sup>14)</sup>에서는 낯선 것이었으며, 대승불

---

혜와 결합된 양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믿음의 지적 측면은 지혜에 의한 확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빨리 텍스트에서는 이를 맹목적 신앙(amūlikā-saddhā)과 구별하여 합리적인 믿음(ākāravatī-saddh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불교의 믿음은 지혜에 기반을 두고 지혜와 결합하고 있으나 그 정서적인 본질이 사라지거나 변하는 것은 아니다.

- 8) Ludowyk, Gyomroi. "The Valuation of Saddhā in the Early Buddhist Texts", *University of Ceylon Review*, vol. 5 (Peradeniya: University of Peradeniya, 1947), p. 48.
- 9) Horner, I.B. *Milinda's Questions*, Vol.1 (London: Luzac & Company, Ltd., 1969), pp.249-250.
- 10) Norman, K.R. *Pāli Literature: Including the Canonical Literature in Prakrit and Sanskrit of All the Hīnayāna Schools of Buddhism* (Otto Harrassowitz · Wiesbaden, 1983), p.74.
- 11) Thomas, Edward J. *The History of Buddhist Though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3), p.178.
- 12) 바이슈나비즘(Vaiṣṇavism)은 사이비즘(Shaivism)과 스마르티즘(Smartism)과 함께 힌두이즘의 중요한 전통들 가운데 하나로서 비슈누(Viṣṇu)를 따르는 무리들을 말한다.
- 13) Lamotte, Étienne. *History of Indian Buddhism: From the Origins to the Śāka era* (tr. by Sara Webb-Boin) (Louvain-Paris: Peeters Press, 1988), p.643. 특히 pp.392-398 참조.

교의 박띠 신앙이 끄리슈나(Krṣṇa)나 쉬바(Śiva)나 다른 신들에 대한 박띠가 발전된 것이라고 본다.<sup>15)</sup> 하르 다얄(Har Dayal)은 박띠라는 용어가 종교적 의미로는 초기불교에서 먼저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붓다가 너무 빨리 이상화되고 영성화되고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열성적인 불교도들에게는 부적절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대상이 되어서 붓다 대신에 보살(bodhi-sattva)이 박띠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한다.<sup>16)</sup> 존 콜러(John M Koller)는 붓다가 남녀신들에 대한 박띠나 예배를 전제하거나 권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에서 여러 보살들에 대한 박띠의 길(bhakti-mārga)을 발전시켰으며, 박띠의 영향이 너무 강력하여 대승불교는 붓다와 보살이 쌓은 공덕을 회향하여 귀의자가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붓다와 보살들의 이름만 외워도 충분하다는 교리를 마침내 발전시켰다고 말한다.<sup>17)</sup>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는 대승불교의 유신론적 신앙인 아미타부 붓다(Amitābha Buddha)에 대한 숭배가 『바가바드기따(Bhagavad-gītā)』의 박띠 신앙에 대응하여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sup>18)</sup> 존 클립포드 홀트(John Clifford Holt)도 대승불교의 보살 이상은 점증하는 인도의 박띠에 대항하여 불교 내에서 일어난 움직임으로 본다.<sup>19)</sup> 유성욱도 불교의 박띠 사상의 기원을 후대에 일어난 붓다의 신격화 과정과 보살 사상에서 찾고 있다. 그는 붓다라는 종교적 스승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붓다의 신격화를 통해서 신적 존재인 붓다에 대한 봉헌으로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서 박띠 신앙

14) 초기 불교(Early Buddhism)는 문헌적으로 남전의 4부 니까야와 『쿠타까 니까야(Khuddaka-Nikāya)』의 일부, 『빠리와라(Parivāra)』를 제외한 『위나야 삐따까(Vinaya-piṭaka)』 전부, 그리고 북전의 한역 아함경(阿含經)과 광율(廣律)에 의거한 불교이다. 연대적으로 초기 불교는 붓다 당시부터 서력 초기까지의 불교로 정의할 수 있다. 필자는 그 기준점인 붓다의 반열반(般涅槃, parinirvāna)이 기원전 400년에서 350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추정한다.

15) Omvedt, Gail. *Buddhism in India: Challenging Brahmanism and Caste* (New Delhi: Sage Publications, 2003), p.105.

16) Dayal, Har. *The Bodhisattva Doctrine in Buddhist Sanskrit Literature*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8), p.31.

17) 존 M 콜러, 허우성 옮김, 『인도인의 길』 (서울: 소명출판, 2013), p.417.

18)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이호근 옮김, 『인도불교의 역사(상)』 (서울: 민족사, 2004), p.311.

19) Holt, John Clifford. *Buddha in the Crown: Avalokiteśvara in the Buddhist Traditions of Sri Lanka*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42.

이 체계화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sup>20)</sup>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오늘날의 불교 지성인들도 빨리 불교에는 본래 의식적 숭배(ritual worship)와 같은 것이 있음을 부정하거나 그러한 숭배에 박띠의 요소가 있음을 더더욱 부정하는 일반적 경향들이 있어왔다.<sup>21)</sup>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주장들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불교 전통에서의 박띠를 인도의 종교적 전통과 관련하여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다만 불교 전통이라고는 해도 그것은 초기불교, 대승불교, 밀교, 동아시아 불교 등 다양한 전통들로 세분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논문에서 그 모든 전통들을 다루는 것은 무리이며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논문의 범위를 주로 빨리 텍스트에 기반을 둔 빨리 불교에 국한하기로 한다.

## II. 인도 전통에서의 박띠

인도 전통에서 박띠는 인도의 역사만큼이나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존 카먼(John B. Carman)에 따르면, 박띠의 만개(滿開)는 고대 인도의 세 가지 주요 종교적 전통들에서의 아주 이른 시기의 유신론적 경향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발전해온 결과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그러한 세 가지 주요 종교적 전통들은, ① 인도로 이주해온 아리안(Āryan)의 희생 제의와 『베다(Veda)』의 기초가 된 브라만 사제들의 암송, ② 나무와 바위에 깃들어 살면서 특별한 장소나 집단을 보호해주는 정령과 마을 여신들을 숭배하는 아리안 이전의 관행, ③ 슈라마나(śramaṇa)라고 알려진 개인과 집단이 실천한 고행(苦行, tapas)과 금욕이다.<sup>22)</sup>

먼저 아리안들의 희생 의식과 『베다(Veda)』에서 브라만 사제들의 암송 의

20) 유성욱, 「박띠(bhakti) 사상의 기원에 관한 연구」, 『인도연구』 제16권 2호 (서울: 인도연구소, 2011), p.76-80.

21) Gokhale, B.G. “Bhakti in Early Buddhism” in *New Light on Early Buddhism* (London: Sangam Books, 1994), p.78.

22) Carman. John B. op. cit., p.857.

식과 같은 유신론적 경향이 박피의 기원과 전개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이는 『베다』와 『우빠니샤드』와 『바가바드기따』와 같은 인도의 정통(āstika) 계통에서 박피의 기원과 전개를 찾는 학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계통에서는 ① 인간적 관계로서 스승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나타내는 구루 박피(guru-bhakti)와 ② 신에 대한 자기헌신(prapatti)과 복종(dāśya)으로서의 박피라는 두 가지 형태의 박피가 모두 나타난다.

다스 굽타(M. Das Gupta)는 마음가짐과 관련되는 박피는 숭배와 의식의 베다와 브라흐마 사상과는 양립하기 거의 어렵다고 말했지만,<sup>23)</sup> 최근 들어 여러 학자들은 박피의 맹아적 형태가 이미 『베다』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4)</sup>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리그베다(R̥g-Veda)』는 종종 자연의 힘을 의인화하거나 부족신이기도 한 바루나(Varuna), 아그니(Agni), 인드라(Indra)와 같은 여러 신들에게 바치는 다양한 찬가들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다』에는 인간의 일들에 대한 신들의 관여, 기도(nivedana), 상징적 봉헌(arcana), 감미로운 회상(smarna)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박피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박피와 상응하는 개념인 슈랏다도 분명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용어 자체도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다.<sup>25)</sup> 게다가 『베다』에서 신자들(bhakta)은 신들을 아버지와 어머니,<sup>26)</sup> 형제, 친척, 그리고 손님으로 부르고, 신의 우정(sākhya)을 호소한다.<sup>27)</sup> 라즈싱(R. Raj Singh)에 따르면, 이는 박피가 원래 세속적 사랑(prema)이라는 보다 친숙하고 인간적인 경험을 모델로 삼고 있었음을 뜻한다고 한다.<sup>28)</sup> 이와 같이 『베다』에서 맹아적 형태로 나타나는 박피는 『우빠니샤드』에 이르러 인간의 관계인 구루 박피

23) Muller, Jeanine. "Bhakti and the R̥g Veda - Does it Appear There or Not?" in *Love and Devotion in Buddhism*, ed. Karel Warn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6), p.2에서 재인용.

24) 베다 문헌들에 나타나는 박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Muller, Jeanine. "Bhakti and the R̥g Veda-Does it Appear There or Not?" in *Love and Devotion in Buddhism*, ed. Karel Warn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6), pp.37-52.

25) RV. 8.32.14; 9.113.2,4; 10.151.2, 3.7.

26) RV. 8.41.11.

27) RV. 4.1.20; 8.84.1.

28) Singh, R. Raj. *Bhakti and Philosophy* (U.K, Plymouth: Lexington Book, 2006), p.29.

(guru-bhakti)로 발전한다. 구루 박피는 지속적인 섬김(sevā), 구루에 대한 명상, 완전한 복종(sūśrūṣā)으로 표현된다.<sup>29)</sup> 라즈싱(R. Raj Singh)<sup>30)</sup>과 유성욱<sup>31)</sup>과 이은주<sup>32)</sup>에 따르면, 그러한 의미로서의 박피는 『슈베따슈바타라 우빠니샤드(Śvetāśvatara-upaniṣad)』에서 처음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예부터 말하였나니  
지고의 아프만(ātman)에 굳은 믿음이 있고  
그러한 충실한 박피가  
스승에 대해서도 있어야 하느니  
그러한 자에게 위대한 아프만을 설함으로써만이  
위대한 아프만이 빛을 내리라.<sup>33)</sup>

이와 같이 『슈베따슈바타라 우빠니샤드』는 신뿐만 아니라 스승(guru)에게도 박피를 바칠 것을 권장한다. 이는 『베다』에서 주로 신을 향한 종교적 감정이었던 박피가 차츰 의인화되는 추세를 반영한다.<sup>34)</sup> 이러한 의인화의 추세는 후기 『우빠니샤드』에서도 계속되는데, 거기서는 스승에 대한 학생의 마음가짐이 신에 대한 신자(bhakta)의 마음가짐과 같다고 해석된다.

성자 사까얀야(Śākāyanya)는 브리하드라타(Brihadratha)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명상에 잠겼다가, 다시 왕 앞에 고개 숙여 말했다. “왕이여, 뿌라자빠띠(Prajāpati)의 아들(발라킬리아)들은 이 브라만의 지혜로 브라만의 길로 갔습니다. 이처럼 브라만에 대한 요가의 수행은 기쁨을 얻고, 선과 악을 견디어내는 힘을 얻고 평온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9) 게오르크 포이에르슈타인, 앞의 책, p.260.

30) Singh, R. Raj. op. cit., p.29.

31) 유성욱, 앞의 논문, p.75.

32) 이은주, 「인도의 베다사상과 대중신앙 형성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인도연구』 제9권 2호 (서울: 인도연구소, 2004), p.212.

33) Śv-up 6. 23.; 이재숙, 『우파니샤드 I』 (서울: 한길사, 2001), p.471.

34) Singh, R. Raj. op. cit., p.28.



지혜는 마음이 안정된 아들이나 제자가 아닌 그 외의 누구에게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스승에게 믿음을 가진 자, 모든 필요한 조건을 갖춘 자에게만 가르쳐야 합니다.<sup>35)</sup>

이와 같이 『우빠니샤드』에서 박띠는 인간의 관계인 구루 박띠(guru-bhakti)로 발전한다. 한편 『바가바드기따』에서는 신에 대한 자기헌신(prapatti)과 복종(dāśya)의 의미로서 체계화된다. 예컨대 『바가바드기따』에서 크리슈나(Kṛṣṇa)가 “어디에서나 나를 보고 나를 모든 것으로 아는 자, 그는 나를 잃지 않고 나도 그를 잃지 않는다.”<sup>36)</sup>라고 말하는 곳에서 그러한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난다.

이러한 힌두이즘의 전통 외에도, 나무와 바위에 깃들여 살면서 특별한 장소나 집단을 보호해주는 정령과 마을 여신들을 숭배하는 아리안 이전의 관행이 박띠의 기원과 전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주장도 있다. 이는 박띠의 기원과 전개를 베다 종교 이전의 비(非)아리안 계통의 관행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존 콜러(John M. Koller)는 박띠 신앙이 『베다』와 『우빠니샤드』 보다도 더 이른 시기, 즉 아리안 이주 이전의 인도의 종교적 관행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 예로서 그는 인더스 문명의 여신상들이 생명, 다산성, 재생산이 신성한 것으로 존경받았음을 나타내며, 이는 힌두교 전통의 후기에 나타나는 여신들과의 직접적인 계통상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sup>37)</sup> 베다 종교 이전 비(非)아리아 계통의 관행에서의 박띠는, 그 유신론적 성격상 인도의 정통 계통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종류의 박띠 가운데 ② 신에 대한 절대적 귀의와 봉헌으로서의 박띠의 형태를 띤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슈라마나(śramaṇa)라고 알려진 개인과 집단이 실천한 고행과 금욕의 종교적 전통도 박띠의 기원과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있다. 존 카먼(John B. Carman)은 이를 입증하고자, 슈라마나들이 역설적이게도 성적인

35) Mā-up 6. 29.; 이재숙, 앞의 책, pp.311-312.

36) Bg 6. 30.

37) 존 콜러, 앞의 책, pp.414-415.

절제와 풍요로움, 다산(多産)의 신인 쉬바(Śiva)를 위대한 요가수행자(yogin)로 종종 간주한 점, 많은 형태의 박띠 신앙들도 신에 대한 헌신을 반드시 수반하기 마련인, 모든 세간적 존재들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고, 박띠 요가(bhakti-yoga)를 말하는 『바가바드기따』처럼 고행 철학의 언어를 사용하여 박띠의 길(bhakti-mārga)을 칭송하는 점, 덜 극단적인 형태의 고행주의가 종종 박띠 운동 속으로 흡수되어 있는 점, 그리고 박띠가 대개 유한한 존재로부터 벗어난 초월적 행복, 즉 목샤(mokṣa)에 대한 고행자들의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고 있다.<sup>38)</sup> 게다가 라즈싱(R. Raj Singh)이 지적하듯이, 『바가바드기따』의 끄리슈나(Kṛṣṇa)와 바가와따(Bhāgavata)의 여러 신들은 바가와(Bhagavā)라고 불리는데 고대 인도의 주요 비정통(nāstika) 계통의 불교와 자이나교에서도 각각 자신들의 지도자인 붓다와 마하위라(Mahāvīra)를 그렇게 불렀다는 점도<sup>39)</sup> 박띠가 슈라마나(śramaṇa)라고 알려진 개인과 집단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sup>40)</sup> 방금 언급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박띠 신앙이 우빠니샤드 사상, 바가와따(Bhāgavata)와 뻬차라뜨라(Pañchārātra) 신앙,<sup>41)</sup> 불교와 자이나교와 같은 인도의 모든 철학적·종교적 전통들을 관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sup>42)</sup>

### III. 삼귀의에서의 자기헌신

삼귀의(ti-sarāṇa)는 불교에 입문하는 통로이자 신앙의 고백이다. 이는 붓다

38) Carman. John B. op. cit., p.857.

39) Singh, R. Raj. op. cit., p.28.

40) 다만 슈라마나 전통이 베다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고 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신과 무관하다는 특성상 비정통 계통인 슈라마나 전통에서 비롯된 박띠는 인도의 정통 계통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종류의 박띠 가운데 구루 박띠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41) 뻬차라뜨라(Pañchārātra) 신앙은 바수데와(Vasudeva), 즉 비슈누(Viṣṇu)를 숭배하는 일신교적 힌두리즘의 전통이다. 이 전통을 따르는 신자들은 자신들을 바가와따(Bhāgavata)로 불렀으며 나중에 이 전통은 바이슈나비즘(Vaiṣṇavism)을 낳았다.

42) Singh, R. Raj. op. cit., pp.27-28.

와 법과 승가의 삼보(三寶, ti-ratana)에 대한 ‘자기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빨리 『율장(Vinaya-pitaka)』과 『쿣다까빠따(Khuddakapāṭha)』 등에 나타나는 삼귀의의 정형구는 다음과 같다.

Buddhaṃ saraṇaṃ gacchāmi.

(나는) 붓다를 귀의처로 간다.

Dhammaṃ saraṇaṃ gacchāmi.

(나는) 법을 귀의처로 간다.

Saṅghaṃ saraṇaṃ gacchāmi.

(나는) 승가를 귀의처로 간다.<sup>43)</sup>

먼저 ‘귀의처’로 번역된 saraṇa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자. 모니어 윌리엄스(Monier Williams)는 그 산스크리트 형인 śaraṇa를 ‘지키는’, ‘보호하는’, ‘보호자’, ‘방어자’, ‘도움’, ‘방어’, ‘피난소’, ‘개인숙소’, ‘벽장’, ‘거처’, ‘집’, ‘(동물의) 안식처’로 정의한다.<sup>44)</sup> 리스 데이비스(T. W. Rhys Davids)와 윌리엄 스테드(William Stede)는 빨리어 saraṇa를 ‘피난소’, ‘집’, ‘안식처’, ‘보호’ 등으로 정의한다.<sup>45)</sup> 붓다닷따 마하테라(Buddhadatta Mahāthera)도 이와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sup>46)</sup> 이러한 어원적 정의를 바탕으로 빨리 주석서 전통은 saraṇa를 신자들의 두려움(bhaya)과 고통(dukkha), 악취(duggati)에 태어남과 번뇌들을 ‘처부수다’라는 의미를 지닌 hiṃsati라는 용어로 설명한다.<sup>47)</sup> 이러한 설명은 사실 상 불교 신자들의 신앙 대상인 삼보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43) Vin.I, p.22; Khp. p.1.

44) Monier Monier-Williams, op. cit., p.994.

45) Rhys Davids, T. W. and Stede, W. ed. *Pāli-English Dictionary* (London: PTS, 1921-1925), p.697.

46) Buddhadatta Mahāthera, A.P. *Concise Pāli-English Dictionary* (Colombo: Colombo Apothecaries' Co., 1968), p.289.

47) Khp-a. p.16, “Idāni gamanādisu hiṃsati ti saraṇaṃ, saraṇagātānaṃ ten’ eva saraṇagamanena bhayaṃ santāsaṃ dukkhaṃ duggatiṃ parikkilesaṃ hiṃsati vidhamati nīharati nirodhetī ti attho.”

볼 수 있다.<sup>48)</sup> 삼귀의의 정형구에 사용된 빠리어 *gacchāmi*는 *gacchati*(가다)의 1인칭 단수형이다. 여기서 간다는 행위는 단순히 어느 목적지로 가는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을 향해서 자기를 내던지는 이미지가 강하게 배어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삼귀의의 정형구는 전체적으로 ‘자기헌신’의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은 남전의 주석가 붓다고사(Buddhaghosa)의 삼귀의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뒷받침 된다. 그에 따르면, 삼귀의는 크게 출세간적인 삼귀의와 세간적인 삼귀의의 둘로 나뉘며,<sup>49)</sup> 세간적 삼귀의는 ① 자기헌신(*atta-sanniyatanā*), ② (삼보를) 자신의 지도 원리로 수용하기(*tapparāyaṇatā*), ③ 자신을 제자로서 수용하기(*sissabhāvūpāgamana*), ④ 경배하기(*pañipāta*)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말한다.<sup>50)</sup> 이 가운데서 붓다고사는 ① 자기헌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또 다시 나는 세존에게 자아(*attā*)를 바치며 법과 승가에게 자아를 바치며, 생명(*jīvita*)을 바친다. 이와 같이 나의 자아를 내던지고 생명을 내버린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붓다를 귀의처로 삼아서 간다. 붓다는 나의 귀의처(*saraṇa*)·보호처(*leṇa*)·피난처(*tāṇa*)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헌신함(*atta-sanniyātana*)이라 알려져야 한다.<sup>51)</sup>

48) 여기서의 초월성과 절대성은 유신론적 종교에서 전지전능한 유일신이 신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산자가 구원을 얻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불교신자가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번뇌를 소멸하여 출세간의 경지인 열반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삼보는 초월성과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9) 출세간적 삼귀의는 성스러운 진리를 본(*ditṭha-sacca*) 성자(*ariya-puggala*)에 의해 행해지는 삼귀의이고, 세간적 삼귀의는 아직 어떠한 깨달음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범부(*puṭhujjana*)에 의해 행해지는 삼귀의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간적 삼귀의일 것이다. 왜냐하면 삼보에 처음 믿음을 일으켜 불교에 귀의하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범부이기 때문이다.

50) Ps.I, pp.132-136.

51) Sv.I, pp.231-232; Ps.I, p.133, Mp.II, p.109, “*Api ca Bhagavato attānaṃ pariccajāmi, dhammassa, saṅghassa, attānaṃ pariccajāmi, jīvitaṃ pariccajāmi, pariccattoyeva me attā, pariccattanyeva jīvitaṃ, jīvitapariyantikaṃ Buddhaṃ saraṇaṃ gacchāmi, Buddho me saraṇaṃ leṇaṃ tāṇanti evampi attasanniyātanaṃ vedītabbāmi.*” Cf. Khp-a. p.17.

이러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삼귀의의 저변에는 믿음, 공경, 사랑으로 나타나는 자기헌신과 복종이 깔려 있다. 이는 범인도적 개념(pan-indian concept)인 박띠의 성격이기도 하다. 냐나포니카 테라(Nyanaponika Thera)는 삼귀의에 담긴 자기헌신과 복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러한 앎과 이해는 신뢰, 헌신, 사랑의 세 가지 요소들을 지닌 삼귀의의 감성적 측면인 세 번째의 확고한 토대를 이룬다. 귀의하는 대상의 존재에 대한 앎은 내적인 보증의 차분함과 확신의 힘에 확고하고 정당화된 신뢰의 기초를 제공한다. 그 숭고한 성질에 대한 앎은 인지될 수 있는 최상의 것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충만하도록 한다.<sup>52)</sup>

빅쿠 보디(Bhikkhu Bodhi)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귀의의 세 번째 측면은 정서적인 것이다. 비록 삼귀의가 정서적 열정이 상을 요구하긴 하지만, 위로 향하는 감정들의 복받침을 부추기지 않고서는 완전한 결실에 이르지 못한다. 귀의하는 행위에 투입되는 감정들은 주로 믿음, 공경, 사랑의 세 가지이다. 믿음(pāsada)은, 귀의하는 대상들의 자질들과 기능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서, 귀의하는 대상들의 보호하는 힘에 대한 잔잔한 신뢰의 감정이다. 믿음은, 지고하고 고아한 삼보의 성질을 점점 자각하면서 생기는 경외감, 존경, 추앙인 공경(garava)을 생기게 한다. 하지만 이 공경은 냉정하고 공식적이고 초연한 상태에만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삶에 미치는 법(法, dhamma)의 변화시키는 효과를 체험해가면서 공경이 생겨난다. 사랑(pema)은 온화함과 생명력의 요소를 영적인 삶에 부가한다. 사랑은, 남들에게 삼귀의의 보호와 해방의 능력을 확장하려는 헌신적인 봉사 행위들로 표현되면서, 헌신(devotion)의 불꽃을 점화한다.<sup>53)</sup>

---

52) Nyanaponika Thera. *The Vision of Dhamma: Buddhist Writings of Nyanaponika Thera* (Onalaska, WA: Pariyatti Publishing, 2015), p.236.

53) Bodhi, Bhikkhu. "Going for Refuge & Taking the Precepts" in *Collected Wheel Publications* Vol XIX, Edited by various authors (Kandy: BPS, 2012), p.55.

붓다교사가 구분한 네 가지 유형의 세간적 삼귀의에는 사실상 인도의 종교적 전통에 나타나는 두 가지 유형의 박띠, 즉 ① 인간적 관계로서 스승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나타내는 구루 박띠와 ② 신에 대한 자기헌신과 복종으로서의 박띠가 나타나며, 양자는 전체적인 개념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분리하기가 극도로 힘들 정도로 서로 얽혀 있다. 이상의 논술을 통해서 우리는 삼귀의가 힌두이즘의 박띠에 상응하는 표식(hallmark)이자<sup>54)</sup> 박띠라고 불리는 종교적 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sup>55)</sup>임을 알 수 있다.

#### IV. 붓다의 두 가지 측면들

비록 빨리 불교에서는 삼보(三寶, ti-ratana)라고 하여 세 가지 신앙의 대상이 열거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그 중심에는 붓다가 자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법(法, dhamma)은 붓다가 말한 가르침이고, 승가(saṅgha)는 그 구성원들이 붓다의 아들과 딸, 상속자, 대리인인 한 신자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붓다가 신자들의 종교적 감정, 즉 박띠의 핵심 대상이 된다.<sup>56)</sup> 에띠엔 라모뜨(Étienne Lamotte)가 만약 우리가 불교 창시자의 강력한 카리스마나 확고한 개성으로부터 불교의 기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교는 설명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고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sup>57)</sup> 이와 같이 붓다는 신앙의 중심에 있는 가장 핵심적 존재로서 빨리 불교의 박띠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타이완의 스광싱(釋廣興)이 말한 대로, 붓다는 빨리 텍스트들에서 인간적 면

54) Gombrich, R. *Theravāda Buddhism: A Social History from Ancient Benares to Modern Colombo*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6), p.169.

55) Gokhale, B.G. op. cit., p.69.

56) Gombrich, Richard. op. cit., p.120.; Werner, Karel. *Love Divine: Studies in Bhakti and Devotional Mystic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3), p.43.

57) Lamotte, Étienne. op. cit., p.639.

모와 초인간적 면모의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양자는 전체적인 개념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분리하기가 극도로 힘들 정도로 서로 얽혀 있다.<sup>58)</sup> 이는 사실상 인도의 종교적 전통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의 박띠가 빨리 불교에서도 모두 나타난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먼저 인간적 면모로서의 붓다는 그가 종종 ‘좋은 친구’라는 뜻의 깔야나밋따(kalyāṇa-mitta)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서 잘 드러난다. 이 용어는 kalyāṇa/kallāṇa(착한, 선량한)와 mitta(친구)의 합성어로서, 제자의 행복을 염원하고 그의 정신적 진보를 걱정하면서 수행을 지도해주는 ‘정신적 스승’을 가리키는 말이다. 『상윳따 니까야(Saṃyutta-Nikāya)』에서 붓다는 깔야나밋따를 사귀는 것이 범행(梵行, brahma-cariya)의 전부이며, 자신을 깔야나밋따로 삼아서, 태어나야 하는 중생은 태어남에서 해탈하고, 우울·슬픔·고통·불쾌·절망의 상태에 있는 중생은 우울·슬픔·고통·불쾌·절망의 상태에서 해탈한다고 말하였다.<sup>59)</sup> 이와 같이 붓다가 자신을 ‘정신적 스승’인 깔야나밋따로 비유하는 것은 마치 박띠 요가(bhakti-yoga)에서 신이 겸손한 신자(bhakta)를 친구의 상태로 승격시킴으로써 우정(sākhya)을 맺는 것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붓다의 10가지 이름들 가운데 하나로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satthā-deva-manussāṇaṃ)’이 나타나는데, 이 이름은 사실상 ① 인간적 관계로서 스승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나타내는 구루 박띠(guru-bhakti)와 ② 신에 대한 절대적 귀의와 봉헌으로서의 박띠를 동시에 나타낸다. 왜냐하면 이 명칭은 붓다가 인간들의 정신적 스승임을 의미하면서도 붓다가 신들보다도 뛰어난 절대적·초월적 존재임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어장부(調御丈夫, purisa-damma-sārathi)’라는 이름도 사람들을 길들이는 정신적 스승으로서의 붓다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적 스승에 대한 자기헌신은 빨리 텍스트 곳곳에서 나타난다.

58) Guang Xing, *The Concept of the Buddha in Early Buddhism: Its Evolution from Early Buddhism to the Trikāya Theory*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5), p.7.

59) SN.I, p.88.

『자따까(Jātaka)』의 「니다나까따(Nidāna-kathā)」와 『붓다왓사(Buddhavaṃsa)』에는 고타마 붓다(Gotama Buddha)가 전생에 수메다(Sumedha)라는 이름의 수행자였을 때 디뵘까라 붓다(Dīpaṅkara Buddha)에게 몸을 내던지는 내러티브가 나타난다.<sup>60)</sup> 제자들의 붓다에 대한 사랑(pema)도 정신적 스승에 대한 자기헌신으로 볼 수 있다. 어느 때 데와닷따(Devadatta)는 붓다를 죽이고자 날라기리(Nālagiri)라는 코끼리에게 술을 먹인 뒤에 그를 향해 풀어 놓았다. 코끼리가 붓다에게 들진해 오는 것을 본 아난다(Ānanda)는 서슴지 않고 붓다 앞에 섰다. 붓다는神通력으로 대지를 뒤로 바꾸어 놓아 아난다가 코끼리에게 밟히지 않도록 하였다.<sup>61)</sup> 이와 관련하여 라즈싱(R. Raj Singh)은 붓다와 아난다 사이의 개인적 박피의 유대와 사제 간의 관계는 『바가바드기따』에서 크리슈나(Kṛṣṇa)와 아루주나(Arjuna) 사이의 친근함과 비슷하다고 고찰한다.<sup>62)</sup>

이제 초인간적 면모를 지닌 붓다에 대한 박피를 살펴보자. 이러한 붓다에게로 향하는 박피는 인도의 종교적 전통 안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형태의 박피 가운데 ② 신에 대한 절대적 귀의와 봉헌으로서의 박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불교는 유신론적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신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붓다는 이미 그의 생애부터 초월적·절대적 존재로서 이해되고 신앙되고 있었다. 여기서의 초월적·절대적 존재는 인간 이상의 신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모든 상대적인 현상, 즉 삼계(三界, *ti-loka*)나 윤회(輪廻, *saṃsāra*)의 세계를 뛰어넘은 존재를 말한다. 대승불교에 비해서 형이상학적 색채가 덜하고 사실주의적 색채가 강한 빨리 텍스트에서도 붓다의 초월적·절대적 면모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타난다. 여래의 10가지 호칭들 가운데 하나인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satthā-deva-manussānam*)’, 무상사(無上士, *anuttara*), 그리고 ‘신들의 신(*deva-deva*)’<sup>63)</sup>과 최상의 신(*ati-deva*)<sup>64)</sup> 신들 중의 신(*devātideva*)<sup>65)</sup> 등으로 불리는 붓다의 호칭들,

60) Ja.I, p.29 ff; Bv.II, p.207 ff; Bv-a. p.104 f.

61) Ja.V, pp.335-336; Dhṃ-a.I, p.119; Vin.II, p.195.

62) Singh, R. Raj. op. cit, p.35.

63) Th.533계.



태어나자마자 붓다가 말했다고 하는 “나는 세계의 최상자다.”<sup>66)</sup>라고 한 말들이 붓다의 초월적·절대적 면모를 드러내는 예들이다. 이러한 호칭들은 남들과 비교하여 그의 상대적인 우위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그 자체에 대한 그의 절대적 초월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다.<sup>67)</sup> 가령 『앙굿따라 니까야(Āṅguttara-Nikāya)』에서 붓다는 “브라만이며, 그와 같이 나는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성장했지만 세상을 지배한 뒤 세상에 젖지 않고 머문다.”<sup>68)</sup>고 말한다. 또 다른 경에서는 해탈한 사람을 이 세상이나 천계 등의 모든 장소에서 찾고자 해도 그 흔적이 발견되는 일은 없다든가<sup>69)</sup>, 혹은 붓다에게는 “발차취가 없다.”<sup>70)</sup>는 등으로 설해되고 있다. 그리고 붓다는 인간뿐만 아니라 제자들과도 차별되는 특출한 존재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붓다에게는 4무애해의 지혜(catu-paṭisambhidā-ñāṇa), 모든 것을 아는 지혜(sabbaññūta-ñāṇa), 10력(十力, dasa-balāni), 4무외(四無畏, cattāri-vesārajāni/catu-vesārajja)와 같이 사람과 제자들에게는 없는 특출한 정신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앙굿따라 니까야(Āṅguttara-Nikāya)』에서는 붓다가 도나 브라만(Doṇa brāhmaṇa)으로부터 “당신은 신(deva)인가 간담바(gandhabba)인가 약카(yakkha)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manussa)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들 모두를 부정하고서 자신은 질문에서 연관시키려고 하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루(漏, āsava)를 모두 끊었으며, 그 까닭에 붓다라고 대답하고 있다.<sup>71)</sup> 이는 붓다가 인간도

64) SN.I, p.141; Th.489계; Nd2. p.307; Mil. p.277.

65) Vv. p.62; Nd2. pp.173, 307; Ap. pp.253, 460; Mil, pp.111, 137, 217, 230, 241, 258, 281, 333, 362, 366, 367, 371, 372, 377, 378, 379, 381, 384, 385, 386, 387, 391, 399, 402, 403, 405, 408, 409, 411, 413, 414, 415, 417, etc.

66) DN.II, p.15; Ja.I, p.53, “aggo aham asmi lokassa.”

67) 닛타 토모미치(新田智通), 『대승의 붓다의 연원』, 『붓다와 정토 II』, 원영상 옮김 (서울: 씨아이알, 2017), pp.95-96.

68) AN.II, p.39, “evam eva kho brāhmaṇa loka jāto loka saṃvaḍḍho lokam abhībhuyya viharāmi anupalitto lokena.”

69) SN.I, p. 23, “Pahāsi saṅkhaṃ na vimānam ajjhagā accheccchi taṅham idha nāmarūpe taṃ chinnagantham anighaṃ nirāsaṃ pariyesamānā na ca ajjhagamuṃ devā manussā idha vā huramaṃ vā saggesu vā sabbanivesanesū ti.”

70) Dhṃ. 179계, “yassa jitaṃ nāvajjīyati jitaṃ assa no yāti koci loka, tam buddham anantagocaraṃ apadaṃ kena padena nessesatha.”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도 아니며, 오히려 신보다도 더 뛰어난 초월적 존재임을 스스로 천명하는 것이다. 붓다가 행한 기적과 초자연적 현상들, 33가지 대인상(dvattiṃsa-mahāpurisa-lakkhaṇa)으로 대표되는 붓다의 특출한 신체적 특징, 붓다가 가르친 법(法, dhamma)과 붓다 스스로가 동일하게 간주됨으로써<sup>72)</sup> 그의 개인성(individuality)이 완전히 소멸되고 있는 점 등도 붓다가 초월적·절대적 존재라는 점을 보여준다.<sup>73)</sup>

빨리 성전과 그 주석서들에는 붓다에 대한 신앙과 붓다에 대한 반복적 생각(buddhānussati)으로 비단 신통과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 해탈도 성취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내러티브들이 많이 나타난다. 「실라니삼사 자따까(Sīlanisamsa-jātaka)」(No.190)에는 붓다에 대한 강한 신앙으로 강 위를 걸어서 건넌 한 신자의 내러티브가 나타나고 있다.<sup>74)</sup> 이는 마치 스리랑카의 카타라가마(Kataragama)에서 신자가 박피의 힘으로 불 위를 맨발로 걷는 행위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붓다를 항상 해치려했던 데와닷따(Devadatta)는 대지가 갈라져 무간지옥(Avīci-niraya)에 떨어지려는 찰라에 자신은 붓다 이외에 다른 신앙 대상이 없음을 고백한다.

71) AN.II, pp.37-38.

72) 가령 『상웃따 니까야(Saṃyutta-Nikāya)』에서 붓다는 자신의 모습을 항상 보고 싶어하는 박칼리(Vakkali)에게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말하고, (SN.II, p.120) 붓다의 본질은 법에 다름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디가 니까야(Dīgha-Nikāya)』의 「악간나 슛따(Aggañña-sutta)』에 의하면, 여래는 ‘법을 신체로서 지니고 있는 자(dhamma-kāya)’이며, ‘법 그 자체(dhamma-bhūta)’라고 한다. (DN.III, p.84.) 그리고 붓다가 찾아내고, 스스로를 일체화시키며, 사람들에게 가르친 법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가 독자적으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영원하게 보편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몇 군데의 경들에 등장하는 과거 붓다에 관한 기술에 의하면, 과거의 일곱 붓다들은 모두 같은 길을 걷고, 동일한 법을 설했다고 한다. (Th.490-491계, SN.II, p.106.) 또한 『상웃따 니까야(Saṃyutta-Nikāya)』에서는 붓다가 깨달은 연기의 법에 대해서 그것은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설해지고 있다. (SN.II, p.25.)

73) 그래서 20세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초기 불교의 텍스트들에 그려져 있는 고따마 붓다를 탈신화하고자 하는 종래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이 몇몇 불교학자들에 의해서 행해져왔다. 붓다의 신격 화설에 대한 비판과 초기불교에서의 붓다의 초월적 면모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닛타 토모미치(新田智通), 「대승의 붓다의 연원」, 『붓다와 정토 II』, 원영상 옮김 (서울: 씨아이알, 2017), pp.85-103.

74) Ja.II, pp.111-113.

이 뼈들을 다해(aṭṭhīhi) 저 가장 뛰어난 사람(aggapuggalaṃ)  
 신들 중의 신(devātideva), 사람을 혼련시키는 분(naradamma-sārathim)  
 원만하게 두루 보고(samanta-cakkhum)  
 무수한 공덕의 특성들(sata-puñña-lakkhaṇaṃ)을 구족한 붓다에게  
 제 생명으로(pāṇehi) 귀의합니다.<sup>75)</sup>

나가세나(Nāgasena)에 따르면, 데와닷따는 10만겁 동안 무간지옥에서 고통을 당한 뒤에 아뿃사라(Aṭṭhissara)라고 하는 벽지불(辟支佛, pacceka-buddha)이 될 것이라고 한다.<sup>76)</sup> 『밀린다빠나(Milindapañha)』의 다른 곳에서 나가세나는 일생 동안 악행을 저질러온 사람이라도 임종의 순간에 붓다에 대한 반복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선한 곳으로의 재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sup>77)</sup> 『답마빠다앗타까타(Dhammapadaṭṭhakathā)』에 따르면, 꽃장수 수마나(Sumana)는 왕에게 바칠 꽃들을 죽을 각오를 하고 붓다에게 바쳤다고 한다. 나중에 붓다는 이러한 박피의 공덕으로 수마나가 앞으로 네 가지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고 마지막 생애에 벽지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sup>78)</sup> 맛타꾼달리(Matṭhakuṇḍali)의 내러티브도 마찬가지이다. 황달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맛타꾼달리는 너무나 병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붓다에 대해 신앙만 일으켰다. 그 공덕으로 그는 죽고 나서 33천(Tāvātimsa)에 태어났고, 나중에 붓다의 가르침을 경청하여 수다원(sotāpanna)이 되었다.<sup>79)</sup> 『위숫디막가(Visuddhimagga)』에 나오는 어떤 개구리(maṇḍūka)의 내러티브<sup>80)</sup>도 이와 유사하다. 이 문헌에는 붓다에 대한 반복적 생각으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한 내러티브도 전해진다. 풋사데와(Phussadeva)

75) Dh-p-a.I, p.147, Mil. p.111, Ja. IV, p.158, “imehi aṭṭhīhi tam aggapuggalaṃ devātidevaṃ naradamma-sārathim samantacakkhum satapuññalakkhaṇaṃ pāṇehi Buddhāṃ saraṇaṃ upemīti.”

76) Mil. p.111, “Devadatto mahārāja, cha-koṭṭhāse kate kappe, atikkante paṭhamakoṭṭhāse sanghaṃ bhindi, pañcakoṭṭhāsaṃ niraye paccitvā tato mucchitvā Aṭṭhissaro nāma paccekabuddho bhavissati.”

77) 나가세나(Nāgasena)는 아주 작은 돌도 배가 없으면 물에 가라앉지만 큰 바위라도 배에 실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선업(kusala-kamma)도 배와 같다고 설명한다. (Mil. p.80.)

78) Dh-p-a.II, p.40 f.; Kh-p-a. p.129.

79) Dh-p-a.I, pp.20 ff.; Vv.II, p.9; Vv-a. p.322 ff.; Pv.II, p.5; Pv-a. p.92.

80) Vism. p.208.

라는 비구는 마라(māra)가 만든 붓다의 상(buddha-rūpa)을 보고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지닌 이것도 이렇게 빛나는데 모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여원(sabbaso vītarāgadosamoho) 세존은 얼마나 빛날까?’라고 붓다를 대상으로 희열(pīti)을 얻고 위뵈사나(vipassanā)를 증장시켜 아라한과를 얻는다.<sup>81)</sup> 이와 같은 내러티브들은 모두 빨리 불교에서의 초월적·절대적 존재에 대한 자기헌신과 복종으로서의 박피를 잘 나타내고 있다.

## V. 맺음말

빨리 불교는 기본적으로 유신론적 종교(theistic religion)처럼 신이나 절대자의 은총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서 맹목적 신앙(amūlikā-saddhā)은 권장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개인은 사성제(四聖諦, cattāri-ariya-saccāni)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그 교리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지적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빨리 니까야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인 법(法, dhamma)이 지금 여기서 볼 수 있고(sanditṭhiko), 시간과 무관하며(akāliko), 와서 보라고 하며(ehi-passiko), 열반을 향해 계속 앞으로 이끌어주며(opanayiko),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 각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paccattam veditabbo viññūhī)이라고 묘사된다.<sup>82)</sup> 붓다 당시에 릿차위(Licchavī) 출신의 비구 수낙따(Sunakkhatta)는 교단을 떠나고서 “사문 고타마는 이론으로 완전 무장하여 법을 설하고 자기의 영감에 따라 검증된 법을 설한다.”<sup>83)</sup>라고 붓다를 비방하고 다녔다. 이 말은 당시의 일부 사람들에게 붓다의 가르침이 직관적 경험과 감성이 결여된, 경험적 사실들에 대한 논리적 분석에만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인

81) Vism. p.228. “So kir’āyasmā Mārena nimmitaṃ Buddharūpaṃ disvā: ayaṃ tava sarāgadosamoho evaṃ sobhati. Kathaṃ nu kho Bhagavā [na] sobhati, [so hi] sabbaso vītarāgadosamoho? ti Buddhārammaṇaṃ pītiṃ paṭilabhitvā vipassanaṃ vaḍḍhetvā arahattaṃ pāpuṇī ti.”

82) DN.II, pp.93, 217; III, pp.5, 227; MN.I, p.37; SN.V, p.343; AN.I, p.149; cf.158; II, p.198; SN.I, p.9; IV, p.272.

83) MN.I, p.68, “takkapaṛiyāhataṃ samaṇo Gotamo dhammaṃ deseti vīmaṃsānucaritaṃ sayappaṭibhānaṃ.”

상을 심어 주었음을 말해준다.<sup>84)</sup>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빨리 불교에 신앙, 믿음, 의식과 같은 정서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빨리 불교가 지닌 종교적 성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sup>85)</sup> 빨리 불교에서 믿음은 깨달음을 향한 실천 수행에서 가장 우선적이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덕목으로서, 붓다의 가르침을 듣는 일에 대한 의욕과 수행의 결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다.<sup>86)</sup> 붓다는 『숫따니빠따(Suttanipāta)』에서 믿음을 씨앗(bija)에 비유하고 있는데,<sup>87)</sup> 이는 믿음이 없으면 ‘정신적 통찰(spiritual insight)’이라는 식물이 싹을 틔울 수 없음을 말해준다.<sup>88)</sup> 불교신자의 기본조건이자 신앙고백인 삼귀의에 주로 투입되는 감정들인 믿음과 공경과 사랑은 인도 전통에서의 박피의 성격과 상응하며, 붓다는 이미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정신적 스승으로서 뿐만 아니라 초월적·절대적 존재로서도 박피의 대상이 되어왔다. 붓다는 갈야나밋따로 표현되는 정신적 스승이면서도 삼계를 초월한 절대적 존재로서 붓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불교신자들 사이에 신앙심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었던 것이다. 한번쯤 자아를 송두리째 버리는 일이 없고서는 결코 절대적 존재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인도 전통에서의 박피 신앙의 본질이라면, 붓다에 대한 ‘자기헌신’도 불교 신앙의 영원히 변치 않는 원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불교에서의 박피가 힌두이즘의 박피 운동에 대한 자체적 대응이라거나 붓다의 신격화의 산물이라는 견해는 모두 빨리 불교에서 믿음과 신앙의 정서적 측면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한데서 비롯된

84) Gokhale, B.G. op. cit, p.69.

85) Conze, Edward. *Buddhist Thoughts in India: Three Phases of Buddhist Philosoph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3), p.47.

86) 예를 들면, MN. I, p.480; II, p.173: “믿음이 생겨난 사람은 [스승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은 존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듣고서 가르침을 지닌다 ... 노력하는 사람은 몸으로 최상의 진실을 체득하고 지혜에 의해 그것을 통찰하여 본다(saddhājāto upasaṅkamati, upasaṅkamanto payirupāsati, payirupāsanto sotaṃ odahati, ohitasoto dhammaṃ suṇāti, sutvā dhammaṃ dhāreti ... pahitatto samāno kāyena c’eva paramasaccaṃ sacchikaroti, paññāya ca naṃ ativijjha passati).”

87) Sn.77계, “saddhā bjaṃ tapo vuṭṭhi paññā me yuganaṅgalaṃ hirī tsā mano yottaṃ satī me phālapācanaṃ.”

88) Conze, Edward. op. cit., p.47.

것이며,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붓다(Gotama Buddha)가 역사적 인물에서 신화적 인물로 신격화되었다는 이른바 ‘붓다의 신격화설’이라는 근대적 편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

## 참고문헌

---

### 1. 원전류(약호)

- 빨리 문헌은 영국 PTS본의 권 번호와 페이지를 기재하였다.
- 빨리 문헌의 약호는 V. Trenckner. *A Critical Pāli Dictionary* (Copenhagen: Royal Danish Academy of Sciences and Letters, 1924-)의 Epilogeomena에 따랐다.
  
- Ap. Apadāna, PTS.
- As. Atthasālinī, PTS.
- Bg. Bhagavadgīta.
- Bv. Buddhavaṃsa, PTS.
- Bv-a. Buddhavaṃsa-aṭṭhakathā (= Madhurattthavilāsini), PTS.
- Dhp-a. Dhammapada-aṭṭhakathā. 3 Vols., PTS.
- DN. Dīgha-Nikāya. 3 Vols., PTS.
- Ja. Jātaka. 6 Vols., PTS.
- Khp. Khuddakapāṭha, PTS.
- Khp-a. Khuddakapāṭha-aṭṭhakathā (= Paramatthajotikā on the Khuddakapāṭha), PTS.
- Mā-up. Māṇḍuka Upaniṣad.
- Mil. Milindapañha, PTS.
- Mp. Manorathapūraṇī. 5 Vols., PTS.
- Nd2. Culla-Niddesa, PTS.
- Paṭis-a. Paṭisambhidāmagga-aṭṭhakathā (= Saddhammapakāsinī), PTS.
- Pp. Puggalapaññatti, PTS.
- Ps. Papañcasūdanī, 4 Vols., PTS.
- Pv. Petavatthu, PTS.

- Pv-a. Petavatthu-aṭṭhakathā (= Paramatthadīpanī on the Petavatthu), PTS.
- RV. Ṛg-Veda.
- Sv. Sumaṅgalavilāsīnī, 3 Vols., PTS.
- Śv-up. Śvetāśvatara-upaniṣad.
- Th. Theragāthā, PTS.
- Vibh-a. Vibhaṅga-aṭṭhakathā (= Sammohavinodanī), PTS.
- Vin. Vinaya-piṭaka, PTS.
- Vism. Visuddhimagga, PTS.
- Vv. Vimānavatthu, PTS.
- Vv-a. Vimānavatthu-aṭṭhakathā (= Paramattha-dīpanī on the Vimānavatthu), PTS.

## 2. 사전류

- Buddhadatta Mahāthera, A.P. *Concise Pāli-English Dictionary*, Colombo: Colombo Apothecaries' Co., 1968.
- Monier-Williams, *Sanskrit-English Dictionary*, Delhi: Motilal Banarsidass, 1999.
- Rhys Davids, T. W. and Stede, W. ed. *Pāli-English Dictionary*, London: PTS, 1921-1925.
- 게오르크 포이에르슈타인, 김재민 옮김, 『요가사전: 요가와 탄트라에 대한 백과사전』, 서울: 여래, 2017.

## 3. 단행본류

- Conze, Edward. *Buddhist Thought in India: Three Phases of Buddhist Philosoph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3.
- Dayal, Har. *The Bodhisattva Doctrine in Buddhist Sanskrit Literature*,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8.
- Guang Xing, *The Concept of the Buddha in Early Buddhism: Its Evolution from Early Buddhism to the Trikāya Theory*,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5.



- Gombrich, Richard. *Theravāda Buddhism: A Social History from Ancient Benares to Modern Colombo*,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6.
- Holt, John Clifford. *Buddha in the Crown: Avalokiteśvara in the Buddhist Traditions of Sri Lanka*,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Horner. I. B. *Milinda's Questions*, Vol.1, London: Luzac & Company, Ltd., 1969.
- Jayatilleke, K. N. *Early Buddhist Theory of Knowledge*,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1963.
- Lamotte, Étienne. *History of Indian Buddhism: From the Origins to the Śāka era (tr. by Sara Webb-Boin)*, Louvain-Paris: Peeters Press, 1988.
- Norman, K.R. *Pāli Literature: Including the Canonical Literature in Prakrit and Sanskrit of All the Hīnayāna Schools of Buddhism*, Otto Harrassowitz · Wiesbaden, 1983.
- Nyanaponika Thera. *The Vision of Dhamma: Buddhist Writings of Nyanaponika Thera*, Onalaska, WA: Pariyatti Publishing, 2015.
- Omvedt, Gail. *Buddhism in India: Challenging Brahmanism and Caste*, New Delhi: Sage Publications, 2003.
- Rāhula, Walpola. *History of Buddhism in Ceylon: The Anurādhapura Period, 3rd Century BC - 10th Century AD*, Colombo: M.D. Gunasena & Co. Ltd, 1956.
- Singh, R. Raj. *Bhakti and Philosophy*, U.K, Plymouth: Lexington Books, 2006.
- Thomas, Edward J. *The History of Buddhist Though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3.
- Werner, Karel. *Love Divine: Studies in Bhakti and Devotional Mystic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3.
- Winterniz, Moriz. *History of Indian Literature*, vol. II, Calcutta: The University of Calcutta, 1933.
- 舟橋一哉, 『原始仏教思想の研究』, 京都 : 法蔵館, 1952.
- 이재숙, 『우파니샤드 I』, 서울: 한길사, 2001.
- 존 M 콜러, 허우성 옮김, 『인도인의 길』, 서울: 소명출판, 2013.

-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이호근 옮김, 『인도불교의 역사(상)』, 서울: 민족사, 2004.

#### 4. 논문류

- Bodhi, Bhikkhu. “Going for Refuge & Taking the Precepts” in *Collected Wheel Publications* Vol XIX, Edited by various authors, Kandy: BPS, 2012, pp.31-92.
- Carman. John B. “Bhakti” in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2. Edited by Mircea Eliade, New York: Macmillan, 1987, pp.856-860.
- Gokhale, B.G. “Bhakti in Early Buddhism” in *New Light on Early Buddhism*, London: Sangam Books, 1994, pp.69-83.
- Ludowyk, Gyomroi. “The Valuation of Saddhā in the Early Buddhist Texts”, *University of Ceylon Review*, vol. 5, Peradeniya: University of Peradeniya, 1947, pp.32-49.
- Muller, Jeanine. “Bhakti and the Rg Veda - Does it Appear There or Not?” in *Love and Devotion in Buddhism*, ed. Karel Warn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6, pp.37-52.
- 石上善鷹, 「佛典に現われたる bhakti 信の用例」, 『印度學佛教學研究』 Vol. 8,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1960, pp.487-494.
- 藤田宏達, 「原始仏教における信の形態」, 『北海道大学文学部紀要』6, 札幌市: 北海道大學文學部, 1957, pp.65-110.
- 닛타 토모미치(新田智通), 「대승의 붓다의 연원」, 『붓다와 정토 II』, 원영상 옮김, 서울: 씨아이알, 2017, pp.85-103.
- 이은주, 「인도의 베다사상과 대중신앙 형성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인도연구』 제9권 2호, 서울: 인도연구소, 2004, pp.201-227.
- 유성욱, 「박띠(bhakti) 사상의 기원에 관한 연구」, 『인도연구』 제16권 2호, 서울: 인도연구소, 2011, pp.69-90.

## Two forms of Bhakti in Pāli Buddhism - With Reference to Indian Religious Traditions

Kim, han-sang  
HK Research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ith this paper, I attempt to approach to bhakti (devotional worship or extravagant devotion) in Pāli Buddhism with reference to Indian religious traditions. Although Bhakti is closely associated with Indian theistic tradition, it is not, as many people imagine, confined to Hinduism. It is a pan-indian concept as well as the central concept in all Indian religious traditions, whether theistic or non-theistic, orthodox (āstika) or heterodox (nāstika). If we define Bhakti in a broad sense to cover an attitude of reverence to a transcendental and absolute being or to a human teacher in forms of self-surrender (prapatti) and servitude (dāśya), then it is certainly found in some form or another in Buddhist tradition. Within Indian religious traditions bhakti is portrayed in two aspects: the divine or the human, according to the object of adoration. Pāli Buddhism is no exception, although it is not a theistic religion. Going for refuge in three jewels, which is the door of entrance to Pāli Buddhism, represents these two in the sense that it is characterized by self-surrender. The same can be said about the Buddha, the ultimate object of worship in Pāli Buddhism. Of the three jewels it is the person of the Buddha which inspires the deepest devotion and has done so from the very start of the Buddhism. In pāli texts the Buddha is portrayed in two aspects: the human and the superhuman or supernatural. These two aspects intermingle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separate one from the other without doing injustice to the concept as a whole. In this sense two

aspects of bhakti are identified in forms of the devotee's worship of the Buddha. The notions that bhakti in Buddhist tradition was its answer to bhakti movement in Hinduism, or that it is the product of deification of the Buddha are misleading. Bhakti had its beginnings in the earliest days of Buddhism and it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Pāli Buddhism.

#### Keywords

Devotional worship (bhakti), Going for refuge (saraṇa-gamana), Hinduism, Pāli Buddhism, Self-surrender (atta-sanniyatanā), Spiritual teacher (kalyāṇa-mitta)

2018년 05월 10일 투고

2018년 06월 14일 심사완료

2018년 06월 15일 게재확정